

권번의 춤에 대한 연구 (券番의 춤에 대한 연구)

-진주권번을 중심으로-
(晋州券番을 중심으로)

김 정 녀
(延世大講師)

目 次

- | | |
|-----------------|----------------|
| I. 서 언 | (3) 券番의 成立 |
| II. 券番의 성립 및 전개 | III. 晋州 券番의 춤 |
| (1) 妓女의 발생 및 전개 | (1) 券番의 역사 |
| (2) 教坊과 女樂 | (2) 춤의 내용 및 교습 |
| ① 教坊의 설치 및 활동 | (3) 놀음(妓業) |
| ② 女樂과 학습 | IV. 결 언 |

I. 서 언

오늘날에 전해져 오는 속화(俗化)한 몇가지의 정재(呈才)와 민간무용으로서의 승무, 살풀이를 비롯해서 많은 무용유산들이 교방(敎坊)과 권번(券番)의 기녀(妓女)들에 의해 교습(敎習)되고 성장해 왔다.

권번(券番)은 교방(敎坊)의 후신으로 기생학교(妓生學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했는데, 일제시대(日帝時代)에 탄생한 명칭이다.

이전의 교방(敎坊)은 고려시대(考慮時代)에 제도화(制度化)되어 이조말(李朝末)까지 약 천여년의 역사(歷史)를 가진다.

그보다 길게는 같은 성격의 기관인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음성서(音聲署)가 있었고, 기록에는 구체적인 설명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미 삼국시대에 기녀(妓女)의 춤이 있었다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¹⁾

1) 張師勛, 韓國音樂史, p.55

즉, 교방(敎坊)은 궁실의 주도아래에 설치, 운영되는 기관이고 권번(券番)은 민간이 설치한 것이기에, 기녀(妓女)들에게 예능(藝能)을 교습(敎習)시킨다는 점에서는 두 기관의 성격이 같으나 그 운영 방법이나 활동 범위 신분등은 다소 달랐던 것이다.

우리 전통 가운데 예능전승의 기능을 해온 권번(券番)과 관련된 기녀(妓女)는 사회적(社會的)으로 환영받지도 못하고 신분도 낮았다.

노래와 춤으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 주면서도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사회적인 보장도 받지 못한채, 기녀(妓女)들은 사건의 활동시기가 끝나면 외로운 노년생활(老年生活)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로는 운이 좋은 기생은 후처로 들어앉은 경우도 있었으나 실제 그런 예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예능유산은 오늘날 그 긍정적인 가치를 재평가(再評價) 받아가고 있다. 이런 예능유산의 발생과 역사적 변천 과정, 사회에의 기여 등 일부가 선학(先學)들에 의해 정리되어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기녀(妓女)에 대한 연구(研究)는 대개 김동욱씨(金東旭氏)의 『妓女史的 序說』²⁾ 김용숙씨(金用淑氏)의 『한국여속사(韓國女俗史)』³⁾, 장사훈씨(張師勛氏)의 『이조(李朝)의 여악(女樂)』⁴⁾, 최숙경씨(崔淑卿氏)의 『고려시대(考慮時代)의 특수직(特殊職) 여성(女性)』⁵⁾, 하현강씨(河炫綱氏)의 『기녀(妓女)』⁶⁾, 이경복씨(李慶馥氏)의 『고려시대(考慮時代) 기녀(妓女)의 유형고(類型考)』⁷⁾, [고려시대(考慮時代)의 기녀연구(妓女研究)』⁸⁾ 등 기녀(妓女)의 활동사적(活動史的) 유형(類型), 기능(機能), 사회적(社會的)신분(身分)등에 대하여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本稿)에서는 예기조합(藝妓組合)인 권번(券番)에서의 가무교습(歌舞敎習)과 학습(學習)후의 기업(妓業)인 소위 『놀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현재 생존(生存)해 있는 경상도 지역의 나이든 기생(妓生)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얻은 자료로써 진주지방(晉州地方)의 권번(券番)에서의 춤의 교습(敎習)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II. 권번(券番)의 성립과정

(1) 기녀(妓女)의 발생 및 전개

기녀(妓女)는 노래와 춤으로서 각종 연회(宴會)에서 많은 사람 특히 남자(男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女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녀(妓女)의 발생에 대해서는 정약용(丁若鏞)은 기녀(妓女)의 기원을 양수척(揚水尺)에 두고 각각 『성호사설(星湖僿說)』, 『필언각비(疋言覺非)』의 설명을 들어서 고려(高麗)가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백제(百濟)의 유민들이 노비적(奴婢籍)에 편입되었으며 그 비(婢)들 가운데 색예(色藝)를 갖춘자들을 뽑아서 기녀(妓女)로 삼

2) 金東旭, 李朝妓女史序說, 亞細亞女性研究, vol.5 pp.75~116

3) 金用淑, 韓國女俗史, 韓國文化史大系IV, pp.529~636

4) 張師勛, 李朝의 女樂, 亞細亞女性研究, vol.p.135~154

5) 崔淑卿, 特殊職女性, 韓國女性史, p.271~279

6) 河炫綱, 妓女, 韓國女性史, pp.518~532

7) 李慶馥, 考慮時代妓女の 類型考, 韓國民俗學, vol.18 pp.83~97

8) 李慶馥, 考慮時代의 妓女研究.

고 궁(宮)에 속하게 하여 가무(歌舞)를 익히게 한 것이 기녀(妓女)의 시초라고 했다.⁹⁾

또는 양수적(楊水的)을 읍적(邑籍)에 올려 남자는 노(奴), 여자는 비(婢)로 하여 미색(美色)을 갖춘 자로 삼은 것이 그 시초(始初)라고 하였다.¹⁰⁾

김동욱(金東旭)은 기녀(妓女)의 본질(本質)은 『사치예(奢侈隸)』라고 말했으며 어떤 민족에 있어서나 계급적(階級的) 분화(分化)가 이루어지거나 전쟁(戰爭)포로의 처리과정에서 기종(機種)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녀(妓女)의 기원을 무녀(巫女)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원래 무녀(巫女)는 신(神) 그 자체였다. 이 무녀(巫女)가 신격(神格)과 정치권력(政治權力)의 분화(分化) 과정에서 점점 퇴행(退行)해서 신(神)에게 봉사하고 신(神)의 신성가족(神聖家族)으로 『노는 계집』으로서 무악(巫樂)의 예능적(藝能的) 면(面)에서 익힌 『놀음』 『노릇』으로 권력기구(勸力機構)에 여악(女樂)의 가척무척(歌尺舞尺)으로 봉사(奉仕)하여 기녀(妓女)가 되는 것이라고 밝힌 중산태랑(中山太郎)의 학설도 참고가 된다.¹¹⁾

또 기녀(妓女)와 관련하여 김동욱(金東旭)은 무녀(巫女)의 시초에 대하여 좀 발전된 견해를 밝혔다. 즉 여신(女神) 그 자체로부터 제정분리(祭政分離)의 추세에 따라 우선 남무(男巫)인 『격(覲)』이 토착화하여 추장을 겸하고 다시 이 격(覲)이 왕권(王權)으로 신장함에 따라 무녀(巫女)들도 토착화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제사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유녀(遊女)로서 가무희자(歌舞戲子)로 전락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산태랑(中山太郎)의 학설을 수용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문헌적 자료는 없으나 고려, 이조의 현수(絃首)가 바로 그런 것이다¹²⁾라고도 하였다.

이경복씨(李慶馥氏)는 기존학설을 근거로 무녀(巫女)로부터 기녀(妓女)가 발생하는 과정과 비자(婢子)로부터의 기녀(妓女)의 발생과정을 재검토하여 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권번(券番)의 춤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둔만큼 위의 설(說)을 수용하기로 하고 다음 논의(論議)를 전개하고자 한다.

원래 무녀(巫女)는 제사의식의 일부인 노래와 춤으로써 신(神)을 즐겁게 하는 존재이다. 때로는 예능뿐만 아니라 성적(性的)인 면(面)에서도 신(神)에게 봉사하는 여인이다. 즉 무녀(巫女)는 신(神)과 결혼한 여인으로 신전(神殿)에서 밤을 새우고 나오는 제신행위(祭神行爲)는 바로 신과의 상징적인 성적(性的) 결합을 의미한다. 이런 행위는 인신공희(人身供犧)와 성기(性器)를 제물로 드리는 풍속으로 변하여졌다고 믿어진다.¹³⁾

무녀(巫女)가 신(神)앞에서 의식(儀式)을 할 때는 악(樂), 가(歌), 무(舞)가 하나의 복합체로 나타나지만 후대에 이르면서 점차 분화(分化)하여 각기 음악, 노래, 춤으로 발전되고 정형화된 것이라 믿어진다.

차츰 나라의 체제가 잡히고 여유가 생기면서 기예(技藝)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되자, 소수의 무녀(巫女)만으로 감당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기예인(技藝人)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전문화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전문가가 바로 이 기녀(妓女)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생긴 노비(奴婢), 관비(官婢), 사비(私婢)된 여인(女人)들

9) 李能和, 解語花史, p.4

10) 崔淑卿, 前掲書, p.271

11) 金東旭, 前掲書, p.75

12) 金用淑, 前掲書, p.554

13) 李慶馥, 前掲書, p.13

가운데 재(才)와 색(色)을 겸비한 이는 관기(官妓)나 성비(聲婢)로 뽑혀질 가능성이 많았다. 이런 과정은 김동욱씨(金東旭氏)가 밝힌 피정복부락(被征服部落)의 부녀자(婦女子)가 사치노예(奢侈奴隸)인 유녀(遊女)로 전락되는 사례등을 보아서 비(婢)의 기녀화(妓女化)과정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¹⁴⁾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녀(妓女)의 발생이 언제 되었는지는 확정적인 연대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이미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여성(女成)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여러 가지 흔적이 보이고 있다.

신라(新羅)는 진흥왕대(眞興王代)에 음악교육기관인 『음성서(音聲署)』가 설치되어 무척(舞尺), 가척(歌尺), 금척(琴尺), 가척(筳尺)등의 전문예능인(藝能人)들을 두고 있었다.¹⁵⁾

이와같이 이미 신라시대부터 기녀(妓女)의 활동(活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원래 『비(婢)』라는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기녀(妓女)에 대한 사항을 고려시대에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은 유형(類型)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 궁(宮)에 적을 둔 궁기(宮妓)가 있어 이것은 또한 교방기(教坊妓)(궁내(宮內)에 속해 있는 교방(教坊)), 지방기(地方妓)로 구분된다. 둘째 관(官)에 매이지 않고 기업(妓業)을 자유로히 할 수 있는 사기(仕記)가 있으며, 셋째 사가(私家)에 거주하며 관기(官妓)와 가찬가지로 노래와 춤을 익혀 주인의 명에 의해 외간남자(外間男子)들의 수청을 들기도 하는 기녀(妓女)등 3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다.

(2) 교방(教坊)과 여악(女樂)

① 교방(教坊)의 설치 및 활동

교방(教坊)이란 궁내(宮內)에 설치되어 여악(女樂)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기녀(妓女)들에게 악(樂)·가(歌)·무(舞)를 교습(教習)하는 장소이다.

원래 교방(教坊)이란 칭호는 당대(唐代)에 이미 기녀(妓女)를 중심으로 궁정무악(宮廷舞樂)의 교습소(教習所)로써 교방(教坊)을 두었다고 전해진다.

교방(教坊)은 장관사(長官使)의 감독아래 박사(博士)가 기녀(妓女)와 악공(樂工)을 가르치며 궁정(弓旌)의 연향(宴饗)에 나아가서 무악(舞樂)을 연주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교방(教坊)의 기녀(妓女)는 궁녀(宮女)의 일종(一種)이나 특수한 임무를 가졌고 신분상(身分上)에 제약이 있어 궁궐내외의 출입(出入)의 자유가 없었다고 전한다. 이것이 오대(五代)를 거쳐 북송대(北宋代)에 이르면 연향악(燕饗樂)의 교습소(教習所)가 되었으며 기녀(妓女)뿐만 아니라 남자악공(男子樂工)까지를 교습(教習)대상으로 삼았다. 북송말(北宋末)에는 교방(教坊)이란 명칭대신에 교악소(教樂所)라 하여 일반시민(一般市民)으로부터 모집한 악인(樂人)들이 쓰이게 되었다고 전한다.¹⁶⁾

고려시대(考慮時代)에 교방(教坊)이라는 기관이 설치된 연대(年代)나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아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는 각종의 당제(唐制)를 받아들여 그것을 참고로 제도를 정비해 가던중에 교방(教坊)을 두게 되었고 그속에 여악(女樂)이 존재했으리라 믿어진다.

고려(高麗) 태조시(太祖時)에 이미 노비(奴婢)에 관한 법(法)이 있어서 수척일족(水尺一族)이 각 읍(邑)에 예속되었다. 수척비(水尺婢)에 관한 기록은 고려 태조(太祖)때의

14) 金東旭, 前掲書, p.75

15) 張師勛, 前掲書, p.55

16) 再引用, 崔淑卿, 前掲書, p.(東洋史辭典, 平凡社, p.4~5)

기록에 보이며 고려 현종(顯宗)대에 이미 교방(敎坊)이 설치되어 있었다.¹⁷⁾

즉 현종(顯宗)은 즉위하면서 교방(敎坊)을 폐지하고 궁녀(宮女) 백여명을 내보냈다고 하며, 다음 해에는 여악(女樂)을 폐지시켰다.

『고려사악지(高麗史樂志)』에 보면 당악(唐樂) 모두 진악부문(秦樂部門)은 악공(樂工)이 담당하였지만 그후 문종(文宗) 27년 2월에는 교방(敎坊)의 주청에 의하여 연등회에 여제자(女弟子) 진향(辰向)등 13인이 답사행가무(踏沙行歌舞)를 담당했다 한다.

같은해 11월에는 팔관회(八關會)에 교방여제자(敎坊女弟子)로 초영(楚英)이 새로 제정한 곡인 포구악(拋毬樂)과 구장기별기(九張機別伎)를 피로했다. 문종(文宗)31년 2월에는 연등회에 왕이 증광전에 거동하였을 때 교방여제자(敎坊女弟子) 초영(楚英)이 왕모대가무를 추며, 한줄에 55명씩의 춤으로 군왕만세(君王萬歲) 혹은 천하태평(天下泰平)의 네글자를 만들어 연희했다고 했다. 이때는 이미 교방여악(敎坊女樂)의 체제가 상당히 가다듬어져 있었다고 본다. 그러니 그 훨씬 이전 성종(成宗) 3년 8월에 계단(契丹)에 여악(女樂)을 보냈다는 기록등이 있다. 이로 보아 이미 성종대(成宗代) 초반이나 그 이전(以前) 어느 시기엔가 교방(敎坊)의 본격적인 활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종년간(文宗年間)이후로 기록에 나타나는 교방(敎坊)의 상황을 보면 당(唐)이나 북송교방(北宋敎坊)의 경우처럼 여악(女樂)을 훈련하여 전통적인 가무(歌舞)를 익히게 하고 또 신곡(新曲)을 창작하여 익히게 하여 궁중(宮中) 여러 의식(儀式)과 연회(宴會)에 아울러 치어(致語), 구호(口號)를 봉헌하게 하고 있다. 또 교방(敎坊)에는 남자악공(男子樂工)들도 있어서 왕(王)의 행차에도 함께 수행하여 진악(秦樂)을 하였다. 여악(女樂)들의 가무(歌舞) 및 치어(致語)와 구호(口號)도 악공(樂工)의 풍류(風流)에 맞추어 연희되어졌다.

이들 기녀(妓女)들은 당향악(唐響樂)의 창(唱)과 무(舞)로써 왕(王)의 사사로운 즐거움이나 궁중연회(宮中宴會), 외교사절(外交使節)의 접대연(接待宴)에 참여하였다.

예종(睿宗) 11년 12월에는 궁중대나시(宮中大讎時) 창우잡기(倡優雜妓)와 외유기(外遊妓)들까지도 불러들여 악(樂)을 공연할 정도로 각지에서 사람들을 불러 올려 나례(讎禮)를 행하였다.

인종대(仁宗代)에 사신(使臣)으로 왔던 서공(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여기(女妓)들의 여악(女樂)과 여무(女舞)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를 보면 당시의 여악(女樂)을 짐작할 수 있다.

의종(毅宗) 21년에는 왕이 장단응덕정(長湍應德亭)에 와서 배안에서 채봉(綵棚)을 걸고 기악백회(妓樂百戲)를 하였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연회의 사치스러움도 추측할 수 있다. 고종이후 정권을 무신(武臣)들이 잡은 후에는 사대부의 개인연회시에도 여악(女樂)과 여무(女舞)가 즐겨 사용되었다.

특히 충렬왕(忠烈王) 5년에는 궁중에 있는 기녀(妓女)들만으로는 연회를 열기에 부족하여 각 지방의 무녀(巫女)와 관기(官妓)중 색(色)과 예(藝)가 있는 자(者)를 뽑아 교방(敎坊)의 인원을 충당케 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가히 행사와 규모가 짐작이 된다. 또한 충렬왕(忠烈王) 25년에는 관기(官妓)·관비(官婢)·무녀(巫女)들 가운데 가무(歌舞)를 잘하는 자(者)를 뽑아 기라(綺羅)를 입히고 마종립(馬鬃笠)을 쓰게하여 남장(男裝)을 시켜 이들을 남장(男裝)이라 하고 신성(新聲)을 가르쳤다.¹⁸⁾ 그러나 여악(女樂)의 공연은

17) 李能和, 前揭書, pp.4~5

18) 李慶馥, 前揭書, p.86 再引用

해가 갈수록 공연 횟수가 늘고 그에 따른 폐해가 컸다.

한편 이조(李朝)의 여악(女樂)은 고려왕조의 제도를 이어받아 더욱 화려하고 장대해져 진행되어 갔다. 이로 인해 세종(世宗)때는 여악(女樂)의 폐지론이 상소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조의 정책의 일환인 척불숭유(斥佛崇儒)의 사회적 기운에 관계되어 여악의 성격이 다소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즉, 太宗 6년에 여악에 관한 제도(制度)가 개정되었다. 의녀(醫女)·침선비(針線婢)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조시대에는 내외법이 엄격했기에 부녀자들은 병이 나도 남의(男醫)에게 치료받는 것을 부끄러워 했다. 그러다가 제대로 약도 쓰지 못하고 죽게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그러나 보니 공주(公主)·옹주(翁主)·양가(良家)의 부녀자들을 진찰하는 방법으로 실을 팔목에 매고 끈의 끝을 의원에게 잡게하여 진맥하였던 것이다. 이런 과정 끝에 의녀(醫女)·침선비(針線婢)가 생겨났다.¹⁹⁾ 검교한성윤단(檢校漢城尹短), 제생원사(濟生院事) 허형(許衡)의 발의에 의해 제생원(濟生院)에는 의녀(醫女)의 제도가 설치되었다. 의녀(醫女)는 각 지방의 관비중(官婢中)에서 똑똑한 자(者)를 골라서 가르쳤다. 지방에서 의녀(醫女)로 뽑아 올릴 때는 반드시 천자(千字)나 효경정속편과 같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서 올려 보내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의방(醫方)을 교육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의녀(醫女)와 침선비(針線婢)는 자연 쉼내에서 내연(內宴)을 위하여 가무(歌舞)를 겸행(兼行)하였기 때문에 고려이후로 계승되어온 궁기(宮妓)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이조의 이런 상황에서도 고려때 보다 점점 연회(宴會)의 여악(女樂)이 사치스럽고 비용이 많이들게 되었다. 한편 기녀(妓女)의 증원으로 그 폐해가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이다. 특히 500년 역사상 기녀(妓女)가 가장 큰 사회적(社會的) 문제로 등장했던 때는 연산군(燕山君)시대였다. 왕(王)은 기녀(妓女)를 뽑기 위해 채청사(綵靑使), 채홍준사(綵紅駿使)등의 관리를 두어 각 지방의 미녀를 뽑아 올리게 했다. 그리하여 뽑혀 올라온 기녀(妓女)의 수(數)가 몇 백명이었으나 그 수(數)가 점차 불어 천명(千名)에 달하였으며 궁내(宮內)에 거주하는 수(數)만도 300여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기녀(妓女)들의 생계(生計)를 위하여 봉족(奉足)이 지급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전국의 농민과 수공업자(手工業者)들은 큰 피해를 받았다.²⁰⁾

이외에도 또 다른 女樂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로 폐해가 나타났다.

女樂은 고려초부터 이조까지 때때로 폐지론이 분분했으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론(理論)과 맞서서 결국은 필요성이 강조되어서, 정치·사회체제상 한말(韓末)까지 존속되어 왔다.

② 여악(女樂)의 교습(敎習)

여악(女樂)은 교방가무(敎坊歌舞)를 말함이며, 기녀(妓女)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여악(女樂)은 오랜 역사(歷史)를 거쳐오는 동안 그 존폐(存廢)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조 말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러한 여악(女樂)이 전승되어 나오기까지 어떻게 각 시대마다 교습이 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신라(新羅) 24대(代) 진흥왕(眞興王) 5년(555년)에는 연례(宴禮)나 제향(祭享) 등의 행사를 위한 음악을 맡아보는 음성서(音聲署)를 두었다. 그리고 궁중연향악에 악가무(樂歌

19) 張師勛, 前揭書, p.196

20) 河炫綱, 前揭書, p.520

舞)를 담당하는 각 인원수(人員數)가 정해져 있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하신열무(下辛熱舞) : 감(監) 4인, 금척(琴尺) 1인, 무척(舞尺) 2인, 가척(歌尺) 3인
- 사내무(思內舞) : 감 3인, 금척 1인, 무척 2인, 가척 2인
- 상신열무(上辛熱舞) : 감 3인, 금척 1인, 무척 2인, 가척 2인
- 소경무(小京舞) : 감 3인, 금척 1인, 무척 2인, 가척 3인
- 사내금무(思內琴舞) : 금척 1인 적의(赤衣), 무척 4인 청의(青衣), 가척 5인 채의(彩衣)

이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이것이 궁중(宮中) 연향악(燕饗樂)임에는 틀림이 없다. 신라의 궁중연향악과 고구려나 백제의 음악과 다른 점은 가야금 하나만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은 노래는 없고 가야금과 춤만의 곡명(曲名)으로 다음의 것이 있다.

- 한기무(韓岐舞) : 감 3인, 금척 1인, 무척 2인
- 미지무(美知舞) : 감 4인, 금척 1인, 무척 2인
- 대금무(碓琴舞) : 무척 적의(赤衣), 금척 청의(青衣)
- 가무(箏舞) : 감 4인, 가척(箏尺) 2인, 무척 1인²¹⁾

이렇듯 악가무(樂歌舞)를 담당하는 이들은 금척(琴尺) 가척(箏尺) 무척(舞尺)이라 칭하며 이들 역할을 분류해 놓고 있다.

또한 진흥왕(眞興王)은 우륵에게 명하여 대내마(大奈麻)인 계고(戒告)에게는 가야금을 법지(法知)에게는 노래를, 그리고 대사(大舍)인 만덕(萬德)에게는 춤을 각각 가르치게 했다. 이로 보아 이들 법지, 계고, 만덕의 세 사람은 창기(倡妓)들에게 악가무(樂歌舞)를 지도하는 역할을 받았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고구려의 경우는 고구려무가 외국(外國)에서도 추어졌었고, 고분벽화에 나타난 기녀로 판단되는 이가 춤을 추는 장면이 남아있다.

필자는 고려시대의 여악(女樂)의 교육 기관이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으나 신라(新羅)의 여악(女樂) 체제를 이어받았으리라고 본다. 더구나 제(第)15대(代) 예종(睿宗)때에 송(宋)으로부터 신악(新樂)과 대성아악(大晟雅樂)이 들어와서 음악사상 뚜렷한 발자국을 남겼다. 연등회, 팔관회가 성해지면서 여악(女樂)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며 궁내(宮內)뿐만 아니라 궁외(宮外)에서도 연희되었다.

조선(朝鮮)시대의 궁기(宮妓)의 교육방법(教育方法)에 대한 세종실록(世宗實錄)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악(女樂)의 교육(教育) 기간은 겨울, 한여름 각 3개월씩 6개월을 제하고, 2월부터 4월까지 4개월과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윤일제(輪日制)로 가르쳤다』²²⁾ 그 교습(敎習) 과목은 현금(玄琴), 가야금(伽倻琴), 향비파(鄕琵琶), 장고(杖鼓), 아쟁(牙箏), 해금, 감울(口篳), 대금(大箏), 소금(小琴) 등이었고, 전공악기에 능숙한 자에게는 다른 악기를 더 배우게 해서 두가지의 연주 능력을 겸하게 했다. 가곡(歌曲)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배워야 했고, 당비파(唐琵琶)도 필수적으로 배워야 했다.

21) 成慶麟, 韓國舞蹈史, 韓國演劇·舞蹈·映畫史, p.317

22) 張師勛, 前揭書, p.155

교습(敎習)하는 데는 각(各) 전공에 따라 선생을 배치하고, 배운 다음에는 제조(提調)가 그 기예(技藝)를 시험하여 서투르면 벌을 주고, 보다 서투르면 학습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교습(敎習)에 충실하지 않은 교사(敎師)를 벌(罰)하는 등,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영조(英祖)때의 교습(敎習) 담당자 목록 등이 진연의궤(進宴儀軌)에 실려있는데 다음과 같다.

각색(各色) 기생차비(妓生差備) 정사(定師)	
가사(歌師)	이처중(李處中) 외(外) 오천우(吳天祐) 이진흥(李震興) 황세웅(黃世雄) 함덕형(咸德亨) 박만의(朴萬儀) 주광윤(朱光潤)
처용사(處容師)	김준영(金俊永) 외(外) 임두성(林斗星) 박만적(朴萬積) 박천빈(朴天彬) 강취성(强就成)
현금사(玄琴師)	함덕형(咸德亨)
가야금사(伽倻琴師)	황세대(黃世大)
장고사(杖鼓師)	김재필(金再弼) 외 박만의(朴萬儀) 강취성(强就成)
교방고사(敎坊鼓師)	황세웅(黃世雄)
방향사(方鄉師)	이지홍(李枝弘)
동기사(童妓師)	김세만(金世萬) 외(外) 김준영(金俊永)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생(妓生)들의 교습에는 전공분야를 맡는 교사가 있어서 분야별로 기생(妓生)들을 교습시켰던 것을 알 수 있다. 교습(敎習)대상은 기녀(妓女)뿐만 아니라 의녀(醫女)·침비(針婢)들에 이르기까지 엮고 각종 악기(惡器)를 전공하여 내연(內宴)에 필요한 여악(女樂)의 모든 것을 배웠다.

기생차비(妓生差備)를 장악안(掌樂案), 가전악안(假典樂案) 및 숙종(肅宗) 이후 각종진연의궤(各種進宴儀軌)를 통해 살펴보면 기생차비(妓生差備) 정사(定師)인 이허중이하(李虛中以下)는 가무악(歌舞樂)에 있어서 당대 악원(樂院)에서도 쟁쟁하던 지도급인 사범(師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기(官妓)는 주로 가무(歌舞)를 맡게 되고 노래나 춤에 반주음악과 관현합주는 악공(樂工)이나 관현맹인(管絃盲人)이 담당하였다고 한다.

당시의 여악(女樂)을 맡은 기녀(妓女)의 수(數)를 살펴보면 세종(世宗) 5년에는 여기(女妓) 108명, 세종(世宗) 29년에는 경기(京妓) 125명으로 했다가 너무 많아서 80인(人)으로 줄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광해군(光海君) 7년에는 70명, 중종(中宗) 5년 150인은 80명으로 줄이고, 인조(仁祖) 2년 80인, 그대신 가동(歌童), 무동(舞童) 80명은 더 두 고자 하였다.

즉, 경기(京妓)의 원수(元數)는 대개 80인(人) 전후로 두었는데 이 수로는 진연(進宴)에 연출되는 정재(呈才)에 등장하는 무원(舞員) 보다는 450명이면 부족하다. 즉 정재(呈才) 침향산(沈香山)의 연출에는 기녀(妓女) 50인(人)이 필요하고, 선유악(船遊樂)에는 40여명이 필요하다.

점차 정재수(呈才數)는 늘고, 또 같은 기녀(妓女)가 그 많은 것을 중복출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부족수(數)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임시로 선출되어 올라온 기녀

(妓女)로서 보충하곤 했던 것이다.²³⁾

이 국가(國家) 행사에 참여하여 교방(敎坊)에서 익혔던 새로운 가무(歌舞)로 행사를 마치고 각기 지방(地方)으로 돌아가서는 동료들에게 궁중에서 새로 배운 가무(歌舞)를 전하여 전파하였을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중에서 오늘날까지 전해내려 오는 것도 있는데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음색, 무태(舞態), 복식, 악기 등이 다소 달라지고 속화(俗化)되어 지방문화유산(地方文化遺産)으로 전해내려오기도 했다.

그 예로는 진주 검무, 통영 승전무, 검무, 해주 검무, 동래 무고, 진주 포구락 등을 들 수 있다.

원래 궁중(宮中)에는 교방(敎坊)이 있었고 그 외의 지방(地方) 관청에도 교방(敎坊)의 성격을 가진 가무교습소(歌舞敎習所)가 있었다. 실제 그 명칭이 교방(敎坊)이었는지 아니면 가무를 익히는 장소 그저 교방(敎坊)이라 표현했는 지는 알 수 없다. 유몽인(柳夢寅)의 어간야담(語干野談)에 보면 『감군어사(監軍御史)는 연회장에 와서 사방을 둘러보고 “평양(平壤)의 교방(敎坊)을 언제 혁파(革罷)하였나”』²⁴⁾라고 했던 것을 보면 당시에도 지방(地方)관청에 기녀(妓女)의 양성기관(養成機關)을 교방(敎坊)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 김동욱씨(金東旭氏)도²⁵⁾ 관기(官妓)들은 각 관아(官衙)의 교방(敎坊)에 매이어 가무음율(歌舞音律)을 배운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이조말(李朝末) 고종(高宗)때에 진주 목사(牧使)로 부임했던 정현석(鄭顯奭)이 펴낸 『교방가요(敎坊歌謠)』를 보면 진주에 교방(敎坊)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교방(敎坊)의 악가무(樂歌舞) 내용에 대하여도 진주(晉州) 의기론개제(義妓論介祭)(의암별제)에 있었던 가무(歌舞)를 그린 색채 그림으로 남아 있어서 진주 교방(敎坊)의 가무(歌舞)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지방(地方) 관청에도 기녀교습소(妓女敎習所)를 교방(敎坊)이라고 이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3) 권번(券番)의 성립

권번(券番)은 교방(敎坊)의 후신으로 일제시대(日帝時代)에 형성된 것이다. 교방(敎坊)이 권번(券番)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한말(韓末)의 교방여악(敎坊女樂)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말(韓末)에 와서 대원군(大院君)은 그의 정치적(政治的)인 집념과 더불어 화억여권(花抑閻卷)에도 큰 선풍을 일으켰다. 대원군(大院君)은 일국을 호령하는 섭정자(攝政者)로써 화류계(花柳界)에 관한 사정까지 관리(管理)한 호사가(好事家)이기도 했다.

운현궁(雲峴宮)에 박효실과 같은 가객(歌客)과 더불어 첫대 피리등 풍류(風流)의 명인(名人)들이 출입하고 장안명기(長安名妓), 명창(名唱)이 항시 궁내에 대령하였던 것이다.

또한 대원군(大院君)은 기부(妓夫)의 자격에까지도 간여하였다.

즉, 당시 명전별감(名殿別監), 포도군관(捕盜軍官), 정원사령(政院使令), 금부라장(禁府羅將)과 각관가(各官家)의 청직이 무사외(武士外)에는 기부(妓夫)가 될 수 없었는데 대원군(大院君)이 금부라장과 정원사령으로 하여금 창부(娼夫)가 되는 것만 허락하고 관

23) 張師勛, 前揭書, 卍.153

24) 河炫綱, 前揭書, p.531

25) 金東旭, 前揭書, p.4

기(官妓)의 주인은 될 수 없다고 간섭하였다.

이와같이 한말(韓末)의 풍류계(風流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고종(高宗)때 박제술(朴齊述)이 지은 조선정감(朝鮮政鑑)에 이런 말이 있다.

『예전에는 관기(官妓)는 판여(板輿) 즉 가마를 타고 폐백장의(幣帛長衣)로 머리에서부터 몸까지 내려쓰면서도 그 얼굴만은 내놓고 다녔어도 창녀(娼女)는 감히 판여(板輿)를 타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즈음에와서는 그러한 구분조차 없게되어 기녀(妓女)나 창녀(娼女)할 것없이 모두 난교(蘭交)를 타고 안경(眼鏡)을 걸치고 수놓은 신을 신는다.』²⁶⁾

이 기록은 성경린씨(成慶麟氏)의 말을 빌리자면 『고종말년에 국운이 기울어 짐에도 불구하고 국경(國慶)은 잇달아 있고 궁중연회(宴會)의 기녀(妓女)들의 가무(歌舞)가 만연하여 각처에서 선상(選上)되어 그 수를 늘리었다.

진연(進宴)에 참가하여 정재(呈才)가 끝나면 하향(下鄉)하는 기녀도 몇 있으나 대부분은 그대로 서울에 머물면서 기업(妓業)을 차리는 것이 보통이었다』²⁷⁾고 한다.

이즈음 1902년 여름에 관립(官立)의 협율사(協律社)라는 극장이 설립되어 봉상사(奉常寺)에 설치되고 궁내부에 두었다.

그리고는 협률사라는 이름의 단체를 조직하여서 이들은 지닌 예능의 기량에 따라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았다.

그 구성원은 각 지역에서 온 각색 창기(倡妓)를 모집하여 관기(官妓)와 예기(藝妓)로 나누고 또 나중에 뽑은 기생을 예기(預妓)라 칭하여 관기와 예기의 중간위치에 두었다.²⁸⁾

또한, 고종(高宗)의 칙명을 받은 김창환(金昌煥), 송만갑(宋萬甲)을 내세워 명인명창들을 전국에서 불러모았다.²⁹⁾

협률사는 칭경의식(稱慶儀式)³⁰⁾을 위해 설립되었던 전속단체였는데, 콜레라등의 전염병, 흉년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칭경의식이 연기되자 일반에게 공개하는 공연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였다.

전속창극단인 협률사 공연 내용은 대개 관기(官妓)의 춤(궁중 정재(呈才)), 창, 걸립놀이, 판소리, 승무, 검무, 사자무 등이 선보였다.

이 협률사는 1908년에 원각사로 개칭이 되어서도 한동안 같은 내용의 공연을 계속했다. 이때의 관기(官妓)의 춤을 당시 극계원로(劇界元老)인 현철씨(玄哲氏)의 증언(證言)에 의하면 『내가 원각사(圓覺寺) 무대에서 춤을 본 것은 갑오경장후 전통있는 관기제도(官妓制度)가 해체된 후의 관기(官妓)와 기생들의 춤이나 기예(技藝)로 궁중무(宮中舞)가 주를 이루었으며 기억나는 춤으로는 아박무, 대고무, 포구락, 가인전목단, 향장무, 무산향, 춘행전, 검무, 한량무, 승무등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³¹⁾

이것이 갑오경장이후 관기제도(官妓制度)가 폐지되었을 때 이들 기녀(妓女)들이 원각사 무대에서 여전히 궁중정재를 추었던 것이고 노래도 시조(始祖)와 가사(歌師)만을 불렀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민속 무용인 한량무, 승무, 검무 등을 추었던 것이다.

26) 張師勛, 前揭書, p.19

27) 成慶麟, 前揭書, p.430

28) 재인용, 황성신문, 1902, 8

29) 朴 晃, 朝鮮唱劇史研究, pp.22~23

30) 崔南善, 朝鮮常識問答(續), p.344

31) 유인희 한국신무용사, 梨花女子大學校碩士論文, p.22 1958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합방이후에는 천여년의 전통을 이어오던 악원(樂院)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면서 그 인원도 감원되었다.

즉, 갑오경장직후 772명이나 되었던 것이 1907년부터 1917년에 와서는 57명으로 줄어들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정재(呈才)인 제례악(祭禮樂)이 오늘날의 명백을 잇게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당시 이왕직(李王職) 아악부(雅樂部)가 지금의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광무(光武) 9년(1905년) 궁중 여악(女樂)이 폐지되자 관기(官妓)들은 흩어져 각기 생계를 위해 고향에 내려가거나 경성에 남아 기업(妓業)을 하기도하고 새로 발족된 연예인단체(藝人團體)에 가담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다. 당시 많은 단체가 있었으나 그 대표적인 단체가 창극단인 협률사와 조선성악연구회등이었다.

광무년간(光武年間)(1897~1907)에는 경무사(警務使) 신태휴(申泰休)로서 접객(接客)하던 소위 삼패(三牌)를 한성남부(漢城南部) 시궁굴에 거주하고 그 이름도 상화실(賞花室)이라 붙여 주었다. 그 뒤 자작 조중응(趙重應)이 이들을 한데모아 신창조합(新彰組合)을 만들었고, 백작 송병준(宋秉峻)은 경기(京妓)를 중심으로 광교조합(廣橋組合)을 창립(創立)하였으니³²⁾ 이것이 기생권번(妓生券番)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일패, 이패, 삼패라는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다.³³⁾

그 이후 7, 8개의 기생조합이 생기면서 교방(敎坊)의 이름을 모방하여 1914년부터 권번(券番)으로 불렸다. 이 무렵 다동조합은 조선권번(朝鮮券番)으로 광교조합은 한성권번(漢城券番)으로 각각 개칭하였다. 권번은 또한 동기(童妓)를 교육하는 기생학교를 부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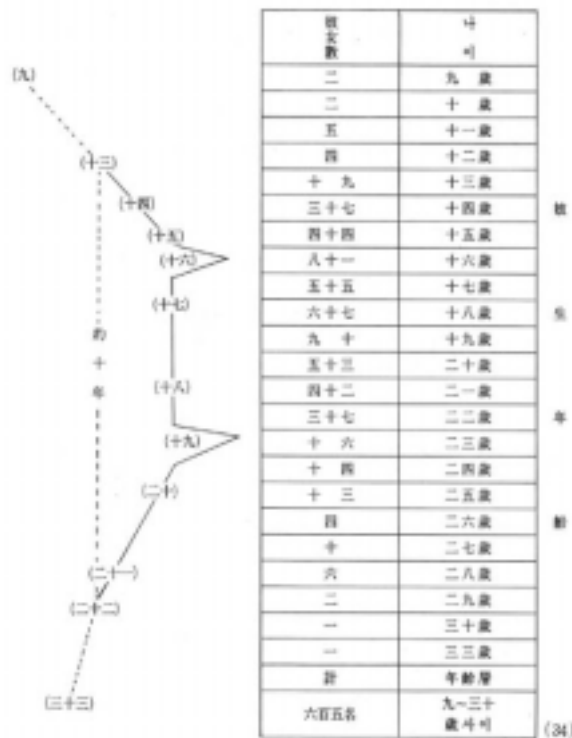
그후 1918년 당시 서울에 있는 권번(券番)의 기적(妓籍)에 명단을 보면, 그 출신이 전국 각지의 권번(券番)출신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³⁴⁾

이러한 현상은 과거 궁중으로 선상(選上)되었다가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있었거나 또는 지방권번(地方券番)출신들이 서울에 있는 권번(券番)에 입적해서 들어가 있던 기녀(妓女)들이다. 대개 연령은 16, 19세가 제일 많고 10, 20세의 수(數)도 상당수가 되었다. 아래 미인보감에서 나타난 기녀(妓女)의 연령분포는 이 방면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32) 柳敏榮, 韓國演劇史Ⅱ, p.113

33) 妓種에는 一牌, 二牌, 三牌로 區分되었는데, 官妓는 一牌라 하고, 殷勤者(또는 隱君子)는 一牌에서 물러난 妾類로 이를 貽貝라 하고, 賣娼하는 遊女를 三牌라 하였다. 또한 一牌는 歌舞와 風流를 익히고, 三牌는 雜歌類를 불렀다.

34) 金善豊혜제, 朝鮮美人寶鑑



제목없음

과거 지방(地方)의 기녀(妓女)들은 궁중여악(宮中女樂)이나 서울의 관기(官妓)로 뽑혀 올라오는 기녀(妓女)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었다. 때문에 지방권번(地方券番)에서의 교습(敎習)을 마치면 권번(券番)의 책임자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분의 또는 동료선배들의 주선으로 서울의 권번(券番)에 입적을 할 수 있었다. 그외에 또다른 이유로는 자신의 고향에 신분을 노출시키고 싶지않아서 타지방(他地方)으로 가기를 원하거나 가버리는 수가 많았다고 한다.³⁵⁾

권번(券番)성립 이후의 권번(券番)에서 교습(敎習)되는 춤 또는 놀음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춤> 정재무(呈才舞)·승무(僧舞)·입무(立舞)·남무(男巫)·검무(劍舞)·남중속무(南中俗舞)

<창(唱)> 장삼무(長衫舞)·남무(男巫)바지·내지무(內地舞)·서양무도(西洋舞蹈)·명지역잡가(名地域雜歌)·가사창가(歌詞唱歌)·남서도행가(南西道行歌)·명지역리곡(名地域俚曲)·좌창풍류(坐唱風流)·병창산조(並唱散調)

<악기> 양금(楊琴)·현금(玄琴)·가야금(伽倻琴)·장고(長鼓)·집박우조(執拍羽調)

<기타> 서화(書畫)·묵화예서(墨畫隸書), 미술(美術)·국어(國語)·한어(漢語)·풍금 등이었다.³⁶⁾

즉, 정재무(呈才舞)가 권번(券番)의 연예종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꽤 컸다. 민속적인 무용이 함께 추어졌으며 노래는 가사(歌詞)를 비롯해서 각 지역 잡가류 심지어는 서양무도(西洋舞蹈) 풍금까지를 연회의 종목으로 했다. 특히 국어(國語), 한어(扞禦), 서화(書畫)까지 다양하게 교육을 시켰던 것은 관(官)의 주도(主導)의 성격에서 민간인의 영

35) 老妓의 말
 36) 金善豊, 前掲書

업적 기구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라 본다.

사회적 변혁에 따라 예능적 흥미의 대상이 달라짐에 교육내용이 변해지고 또 다양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정재무(呈才舞)가 많이 추어지고 있었던 것은 권번기녀(券番妓女)들중에는 궁기(宮妓)나 관기(官妓)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본다. 서울의 제권번(諸券番)에 있는 기녀(妓女)의 출신 권번(券番)지역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울이 200명(名)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평안남도(平安南道) 156명(名), 세 번째가 120명(名)으로 경상북도, 네 번째가 72명으로 경상남도, 다섯 번째가 전라북도와 경기도로 각각 17명(名)이고 그외의 도(道)는 10명(名)이하이다.

도시별로 볼 때 경성부(京城府)를 제외하고 보면 평양부(平壤府)가 96명(名), 진주군(晉州郡)이 30명(名), 고양군(高陽郡) 8명(名), 연기군(燕岐郡) 7명(名), 광주군(光州郡)이 6명(名), 전주군(全州郡) 6명(名)의 순(順)으로 그 분포 상황을 알 수 있다.³⁷⁾

Ⅲ. 진주(晉州) 권번(券番)의 춤

(1) 권번(券番)의 역사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晉州)는 예로부터 풍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많았다. 특히 고려시대로부터 시작되는 기생(妓生)을 소재로 하는 설화, 역사적 단편들이 많이 전해오며, 이런 점은 진주권번(晉州券番)의 역사와도 관련이 된다.

고려말엽 충렬왕(忠烈王)때 권의(權宜)가 사신(使臣)으로 진주(晉州)에 가서 주인(州人) 정연(鄭延)의 애기(愛妓)를 사랑하는지라 연(延)이 기(妓)를 업고 도망가자 그 모(母)를 옥에 가두매 연(延)이 돌아와 옥을 엿보니 권의(權宜)는 연(延)을 잡아 죽여 버렸다. 한편 충숙왕(忠肅王)때에 이선풍(李宣風)은 애초 원인(元人)이었으나 충숙왕의 폐신(嬖臣)이 되고 보양기(普陽妓)의 월아(月娥)를 거두니 사람들이 월아를 통하여 관(官)을 얻은 자(者)가 많았다는 것이다.³⁸⁾

이조중기(李朝中期)의 진주기생(晉州妓生) 월정화(月精花)의 사실을 노래한 『월정화(月精花)』가 전해지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진주기생(晉州妓生)으로는 논개(論介)가 있다.

임진란때의 진주성(晉州城)싸움에서 논개(論介)가 왜장을 껴안고 의롭게 죽었다는 것과 제2차 진주성 싸움때의 진주노기(晉州老妓)의 예언 등이 전해지고 있다. 그 밖에도 진주기녀(晉州妓女), 진주기생(晉州妓生)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문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언급되고 있다.

또 『조선(朝鮮)의 매춘부(賣春婦)』³⁹⁾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기생교양에 있어서는 평양, 진주에는 옛날부터 학교가 있고, 그외 지역은 기가(妓家)가 있었다. 그 과목은 음곡(音曲), 독서, 습자, 기타 필요한 기예(技藝)를 배우고 때로는 시화(詩畵)를 가르친다.

진주(晉州)에는 고려시대부터 관기(官妓)가 있었으며 이조(李朝)말까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궁중여악(宮中女樂)의 폐지로 성해진 권번(券番)의 기녀(妓女)양성과 기업(妓業)은 관(官)의 주도(主導)의 성격에서 민간인 운영의 성격으로 탈바꿈하면서 그 기

37) 同上

38) 金用淑, 前掲書, p.566

39) 今村輝, 朝鮮風俗集, pp.281~288

구의 운영 방법이 달라졌다. 또한 기녀(妓女)의 신분상의 계층도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고종(高宗) 4년(1867년)에 진주목사(晉州牧使)로 전임된 정현석(鄭顯奭)이 고종 9년(1872년)에 편찬한 교방가요(敎坊歌謠) 서문에 보면,

『내가 진양(眞陽)(=진주)에서 관리를 할 때 여유가 좀 있었기에 교방(敎坊)을 설치하고 비속한 가무(歌舞)에 대하여 모든 것을 즉 시(詩)로 지은 것이 약 천(千)수, 감칠 맛이 없어 말이 길어졌지만……』

라는 기록에서도 진주지방(晉州地方)의 교방(敎坊)의 설치 동기와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권번(券番)이 일제(日帝)의 종말과 함께 8·15를 맞고, 6·25직전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러한 사실에 대한 기록은 알 수가 없으나 1913년 이후로 진주기녀(晉州妓女)를 지내다가 지금은 86세의 노기(老妓)로 생존해 있는 분이 있다. 생존해 계신분이 이분 이외에도 후배인 77세(才), 74세(才), 64세(才) 되신 분이 있어 진주문화재(晉州文化財)로 지정된 진주(晉州) 검무(劍舞) 기능 보유자이다. 이분들은 지금은 퇴진하셔서 진주 검무 지도와 자문의 일을 맡고 있다.

여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방 이후에는 예기조합으로 이어졌던 진주 권번(券番)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진주에서 전해져 추어지고 있는 권번(券番)의 가무악(歌舞樂)은 다음과 같다.

1. 의암별제가무(의식무(儀式舞), 일영신무(一迎神舞), 오신무(娛神舞), 송신무(送神舞))
2. 검무, 포구락, 승무, 사풀이, 굿거리, 한량무

그러면 그 당시 권번(券番)(예기조합(藝妓組合))에서 실시되었던 가무교습(敎習)과 그 내용, 그리고 교습(敎習)을 마친 후의 기업(妓業) 소위 『놀음』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2) 춤의 내용 및 교습

진주권번(晉州券番)의 춤의 내용에 대해 논하고자 할 때는 우선 한말(韓末)의 교방청(敎坊廳)(관아의 주도)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권번(券番)을 이해하기 쉽다. 여기서는 관(官)주도였던 진주교방청(晉州敎坊廳)에서의 춤의 내용, 교습(敎習)관계를 밝히고 넘어가려 한다.

• 한말(韓末)의 교방(敎坊)(1867년 이후~일제전까지)

고종(高宗) 4년(1867년)에 진주목사(晉州牧使)로 부임했던 정현석(鄭顯奭)은 교방(敎坊)을 재설치하라 함은 그 이전에 진주(晉州)에 교방청(敎坊廳)이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교방(敎坊)을 두었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제 당시의 추어졌던 춤을 들어보기로 한다.

① 춤의 내용

진주(晉州) 교방(敎坊)에서 연희되었던 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육화대(六花隊)·연화대(蓮花臺)·헌선도(獻仙桃)·고무(鼓舞)·포구악(拋毬樂)·검무(劍舞)·반악(般樂)·항장무(項莊舞)·의암가무(義岩歌舞)·아박무(牙拍舞)·향발무

(響鈸舞)·황창무(黃昌舞)·처용무(處容舞)·승무(僧舞)등이다.

이 가운데 의암별제가무(義岩別祭歌舞)는 오직 이 진주(晋州)의 의기(義妓)인 논개(論介)의 혼을 기리기 위한 제의(祭儀)에서 추어지는 일종의 의식무(儀式舞)이다.

즉 그 춤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향무(上香舞)·초헌무(初獻舞)·아헌무(亞獻舞)·종헌무(終獻舞)등이다. 특히 초헌무로써는 검무(劍舞)가 반드시 추어진다.

이 별제(別祭)의 의식(儀式)이 다 끝나면 항상 여흥가무(餘興歌舞)가 있었는데 그 춤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아박무·향발무·황창무·처용가무·승무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의 승무는 장삼춤이 아니라 승(僧)이 속세(俗世)에 내려와 젊은 여인(女人)을 데리고 희롱하는 일종의 중춤이다.⁴⁰⁾⁴¹⁾

② 춤의 교습(敎習)

진주교방(晋州敎坊)에서의 춤을 가르치는 방법,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춤의 내용이 궁중여악(宮中女樂)의 정재(呈才)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아 궁중여악(宮中女樂)의 일원(一員)으로 활약했던 관기(官妓) 또는 지방관기(地方官妓)(진주관기(晋州官妓)였던 기녀(妓女)등이 중심이 되어 지도했음이 틀림없다. 이 외에도 속무(俗舞)인 검무(劍舞), 승무(僧舞)도 함께 전수되었다.

• 일제시대(日帝時代)의 권번(券番)의 춤(6·25사변직전까지)

한말기(韓末期)의 교방(敎坊)조직은 일제치하(日帝治下)에서 무산되어 버렸다. 언제 어떻게 해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후에 민간인(民間人) 운영으로 예기조합(藝妓組合) 즉 권번(券番)을 통해서 기녀(妓女)들의 기업(妓業)이 계속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춤의 내용에 대해 각 시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시대 : 헌선도, 포구락, 고무, 선유락, 검무, 승무(중춤), 굿거리, 의암가무 등(이것은 노기(老妓)의 기억에서 나온 종목이지만 몇가지 더 있었을 것으로 사려된다.)

8·15이후 : 포구락, 검무, 굿거리, 살풀이, 승무(장삼승무), 의암가무, 한량무, 팔선너무, 바둑춤, 장기춤 등(이것은 노기(老妓) 최예분(崔禮分), 이음전(李音全), 김수악(金壽岳 3분이 함께 말씀해 주신 춤의 종목이다.)

1910년이래 변혁기의 권번(券番)의 춤은 자연히 전승되는 과정에서 춤의 내용과 변화가 오게 되었다.

많은 인원수와 번잡한 무구(舞具)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정재무(呈才舞)는 점차 줄어가고 민속무용(民俗舞踊)이 늘어가는 경향으로 흘러왔다.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종목은 점차 지도도 하지 않게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독무(獨舞)나 2인(人)~4인무(人舞)만이 전해내려 왔다.

이윤례씨(李潤禮氏)는 검무로 재주가 있던 분이였기에,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검무(劍舞)를 재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교습(敎習)을 제대로 받은 이들로 8명을 채울 수가

40) 敎坊歌謠 參考

41) 筆者 現地조사 대답

없이 나머지 인원을 가정주부들로 충원해서 검무를 복원했던 것이다.

이윤례(李潤禮), 최예분(崔禮分), 이음전(李音全) 할머니들이 이제 연령관계로 활동을 못하게 되자 오로지 김수악씨(氏)가 춤의 지도자로 오늘날까지 활약하고 있다.

그리하여 김수악씨(氏)의 장기인 검무이외에 주로 살풀이와 소고춤이 결들인 곳거리 춤을 지도하고 있다. 광주권번(光州券番)출신이면서 해주권번(海州券番)에서 기녀(妓女)들을 지도하셨던 강귀례(예명 해주댁)씨(氏)는 서울 종로권번(鐘路券番)을 거쳐서 1958년경에 진주(晋州)에 오서 자리잡고 권번(券番)에서 춤을 지도했다. 특히 승무가 특기였다. 그 외에도 자신의 창작품인 팔선녀, 장기춤, 바둑춤 같은 소품을 가르치기도 했다.

74재(才)이신 이음전(李音全)할머니보다 5년정도 위이신 강할머니는 50세전후에 진주(晋州)로 옮겨 살았다. 한동안 진주권번(晋州券番)에서 맥이 끊겼던 승무(42)를 지도하신 장본인이셨는데 세상을 일찍 떠났다.

진주(晋州) 승무는 그 꽃을 활짝 피우지도 못하고 사라질 뻔 했는데 금번 현지 조사 중에 필자가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재현시킬 것을 권유한 바가 있다. 지금은 오직 3명의 승무(僧舞) 무자(舞者)가 열심히 옛기억을 더듬어 원래의 모습을 재정리하는 중이다.

춤의 학습방법은 매우 엄격했고 그 종류도 다양했으며 주로 오후에 행해졌다. 시간표는 오전부터 짜여져 있어 각기 전공별로 기예(妓藝)를 익혔고 수업이 끝나면 개인연습도 하고 전공이외의 과목을 배우기도 했다.

재주가 많고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기녀(妓女)는 이름있는 스승을 찾아가 개인 교습(敎習)도 받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에까지 가서 스승을 찾아 배우는 수도 있었다.

권번(券番)에서는 특히 예절공부의 시간은 오전에 넣어 기녀(妓女) 전체에게 가르쳤다. 이것은 놀음을 나가는 때에 대인관계(對人關係)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교습시간표(敎習時間表)는 각 권번(券番)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동소이했다. 아래 이윤례씨와 그의 후배들의 교습시간표(敎習時間表)이다.

※ (현86세(才) 이윤례노기(老妓)의 학습(學習)당시부터 지금까지(1913년~))

	학습내용	비고	춤스승	비고
오전	① 예절(용모·복장포함) ② 기악 ③ 시조 ④ 장, 단가 ⑤ 한문, 습자	오전이 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어 특기별로 나누어 공부한다. 그러나 예절은 전원이 학습춤을 주로 하는 기녀(妓女)와 그의 노래, 악기연주하는 학습기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원하면 개인 연습시간이나 오전 시간에 다른 과목을 들을수도 있다.	※ 진주(晋州)조 합출신 녀(女) 이백화 남(男) 박구겹 녀(女) 최완자 녀(女) 조인자 녀(女) 김자진 녀(女) 김체자 녀(女) 신고주 남(男) 이윤례 녀(女) 강귀례 녀(女)	이윤례씨 학습당시와 이후의 진주권번(晋州券番)에서 춤을 가르친 스승의 서열
오후	① 춤		최예분 이음전 김수악	
	○ 개인 연습			

42) 정현석씨의 敎坊歌謠 내용에 있는 僧춤인 승무가 아니라 長衫僧舞를 일컫는다.

교습비(敎習費)로는 입학시 입학금을 내는 것 외에 매월 200원(일제시대 당시)을 지불하여야 했다.

교습(敎習)기간은 3년으로 하여 1급, 2급, 3급의 3등급으로 나누어 3급을 마치고 시험을 치루어서 합격을 해야만 『놀음에 나갈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심사위원은 주로 지방유지로 구성된 권번(券番)의 경영주와 같은 자격의 이사급(理事級)들이었다.

권번(券番)은 수수료를 받고 기녀(妓女)를 관청이나 요정 그리고 개인연회(個人宴會)(환갑잔치 등)에 보내 주는 중개업자이다. 따라서 기녀(妓女)의 여러 가지 자질양성을 위하여 매우 엄격한 교습(敎習)을 시도했다.

정규 교과과목외에도 예절, 자세, 걸음걸이, 앉는 자세, 말하는 솜씨, 몸의 청결, 의복 단정등에 대하여도 가르쳤다.

더구나 놀음을 나가서 일하는 도중의 행동거지는 엄격하게 했다. 놀음을 나간 기녀(妓女)가 혹시 잘못 지켰을 시에는 그에 대해 벌행을 하기까지도 했다.

(3) 기업(妓業)(놀음)

놀음을 나간다고 함은 권번 양성소에서 3년간 학습을 받은 후 시험에 합격을 한 기녀(妓女)에 한해서 놀이자리에 불리워 나간다는 말이다.

<놀음에 불리워감>

기녀(妓女)들은 항상 대기상태로 있다가, 출석요청에 의해 자리에 나아간다. 권번(券番)은 이런 연락을 담당하여 몇월 몇일 어느 장소·시간을 적은 표를 주던가, 아니면 권번(券番)사무실의 게시판에 기녀(妓女)의 이름표가 붙여지고 그 아래 요청받은 장소·시간이 적혀있게 된다. 요청하는 방법은 요정이나 관청 또는 개인연회에서 권번에 연락하여 부탁을 하게 된다. 때로는 기녀(妓女)의 이름을 지적하여 그녀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약속한 날, 시에 기녀(妓女)의 집앞에 인력거를 대령시킨다. 이름 있고 인기가 있는 기녀(妓女)는 미리 여러곳의 요청으로부터 예약을 받기도 한다.

기녀(妓女)는 인물기생(人物妓生)과 학습기생(學習妓生)의 대우가 월등히 좋았다.

이 주문은 권번 지휘장이 통괄하며 기녀(妓女)선정도 지휘장이 하게 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지방에 재산이 많은 갑부가 자기 생일이나 잔치날 손님을 초대해서 한꺼번에 기녀(妓女)들을 불러들인다. 만일 그때 기녀(妓女)의 수(數)가 모자라면 다른 가까운 지역의 권번(券番)에서 불러오기도 한다. 그리고는 이틀전부터 기생(妓生)들을 호강시킨다며 일제히 나귀를 태워 들놀이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음식을 차려 먹고 놀기도 한다. 잔치를 잘 끝내면 다음날 베 또는 모시, 비단 필을 종이로 포장해서 주어 보낸다.

만일 그날 태도가 부실했거나 음식을 상스럽게 먹어서 손님의 빈축을 살 경우 그 별로 나귀목에 엽전 주머니를 걸어서 그것을 태워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망신을 주는 것이었다.

특히 주석(酒席)에서 기녀(妓女)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규칙이 있다. 기녀(妓女)들의 식사는 한사람씩 적당히 불러내어 국밥등을 먹여 들여보낸다. 혹시 손님상의 것을 먹으면 크게 벌을 받기도 했다한다.

옛날 고려때부터 외관(外官)은 대개 처자를 데리고 부임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부임하게 되므로 관찰사 군수등은 이러한 기생(妓生)을 초대하여 타향의 여수를 달래기도

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기녀(妓女)가 생기면 임기를 마치고 중앙으로 돌아갈 때 데리고 올라가기도 한다.

또, 조선시대의 태종(太宗)은 김해관기(金海官妓)를 태상궁인(太上宮人)으로 삼아 왕(王)의 성운을 입은 후에 화의옹주(和議翁主)라 봉작(封爵)했다는 특별한 사례도 있다.

<화대>

기생(妓生)들이 받는 화대는 시간(時間)당으로 계산이 되며, 그 금액을 표에 적어서 권번(券番)으로 보내면 15일, 30일 간격으로 그 사이에 몇회를 나갔던 간에 그 만큼의 계산액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화대표는 권번(券番)으로 직접 보내는 데가 있고 본인 기녀(妓女)에게 주어서 확인한 다음 기녀(妓女)가 권번(券番)에 전해주는 곳도 있다. 그러므로 용모가 뛰어나던지 자기 특기로 인해 인기가 있는 기녀(妓女)는 그만큼 횡수가 많으므로 수입도 따라 많아지게 된다.

<머리없음>

기녀(妓女)가 놀음을 다니는 중에 만난 남자 가운데 특정인의 관심을 끄는 일이 있다. 그 남자는 일단 기녀(妓女)에게 의증을 묻고 허락하면 하룻밤을 같이 지낼 수도 있다. 이렇게 기생(妓生)의 머리를 없애주고 나면 일반인의 약혼때와 같이 남자는 폐물을 먼저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날 장·이부자리·옷등이 기녀(妓女)의 집으로 들어옴으로써 기녀(妓女)는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남자(男子)는 권번(券番)에 한턱내야 된다. 남자(男子)는 임시 거처가 된 기녀(妓女)의 집을 자주 드나들게 되며, 기녀(妓女)의 생활비를 부담함은 물론이다. 이후로 기녀(妓女)가 놀음을 나가는 것은 머리를 없애준 남자(男子)의 처분에 달려있다. 나가도 괜찮다면 나가되 절대 다른 남자와는 상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남자쪽에서 놀음을 끊으려면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몇 년을 같이 지내다가 혹 남자(男子)가 생활비를 대어줄 능력이 없어지거나, 그 기녀(妓女)가 싫어지면 그만두겠다고 선언하고 기녀(妓女)를 해방시켜준다.

노기(老妓)들의 실제 결혼의 예를 보면, 대부분이 나이차기아 워낙 많아서 중간에서 남자(男子)가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가 많고, 생활하는 능력이 없어져서 기녀(妓女)를 포기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기녀(妓女)에게 행운의 기회란 남자(男子)의 본처가 혹시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면 그 자리에 들어앉게 되는 것이어서 노후를 안정되게 살 수 있게 된다. 남자(男子)가 일찍 죽거나 헤어지게 되면 기녀(妓女)는 다시 놀음을 나가거나 이미 노기(老妓)가 되었을 경우에는 따로 요정을 차려 후배들을 불러들여서 영업을 하게 된다.

6·25이후 권번(券番)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나, 그 자리는 지금도 남아 있는데, 진주시 대안동의 현 상업은행자리이다. 최후의 권번(券番)의 경영주의 이름은 김창룡·전두옥 씨(氏) 등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권번(券番)의 정식명칭은 『예기조합(藝妓組合)』 또는 『예기권번(藝妓券番)』으로 불리웠다.

IV. 결 언

이상에서 권번(券番)의 춤에 대한 연구를 위해 기녀(妓女)의 발생과정 및 그 춤의 교습(敎習)과정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권번(券番)에서의 춤, 특히 진주권번(券番)에서 이루어지는 춤의 교습(敎習), 내용, 방법, 놀음등에 대하여는 현지조사의 자료를 활용했다.

교방(敎坊)이란 원래 당대(唐代)에 기녀(妓女)를 위한 궁중무악(宮中舞樂)의 교습소

(敎習所)로서 우리나라에는 고려 성종대(成宗代)를 전후해서 설치되었으리라 본다. 여기에 속해 있는 기녀(妓女)의 여악(女樂)의 활동(活動)에서 빚어지는 국가적인 폐해가 많아 역사적으로 이에 대한 존폐(存廢)의 논란은 끊임없었다. 결국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여악(女樂)은 이조말(李朝末)까지 이어졌었다.

고종(高宗) 광무(光武) 9년에 여악(女樂)이 폐지되고 한일합병이 되자 궁중(宮中)의 교방여악(敎坊女樂)을 맡았던 관기(官妓)들이 해체되고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민간 사회의 예술단체나 기생조합(妓生組合)에 적을 두고 생업을 계속했다.

이 기생조합(妓生組合)은 일본(日本)말의 표현으로 그 명칭을 권번(券番)이라 했고 점차 각 지역에도 권번(券番)이 탄생하게 되어 기녀(妓女)들은 여기서 양성되었다.

이 권번(券番)을 지방에서는 예기조합(藝妓組合)이라 칭하고 동기(童妓)들에게 가무악(歌舞樂)을 교습(敎習)시키어 놀음을 내어 보내는 영업을 하였다.

즉, 권번(券番)은 수수료를 받고 기녀(妓女)를 요정이나 관청의 연회(宴會) 그리고 개인연회에 보내주는 일종의 중개자 입장이다. 즉, 관(官)의 주도(主導)로 운영되었던 교방(敎坊)이 민간인(民間人)이 운영하는 영업으로 변신하면서 그 성격이 달라진다.

본고(本稿)에서는 진주권번(晉州券番)의 기능과 거기서 교습(敎習)되는 춤의 내용 및 교습(敎習)과정, 교습(敎習)후의 활동상황등을 밝히기 위해서 현재 생존중인 당시의 몇 명 기녀(妓女)들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즉, 한말(韓末)의 진주교방(晉州敎坊) 재설치부터 6·25사변 직전까지의 역사를 살펴 보았다.

일제시대(日帝時代)에 권번(券番)의 춤의 교습(敎習)내용은 한말(韓末)때의 교방가무(敎坊歌舞)의 내용을 받아 대부분이 궁중여악(宮中女樂)으로써의 정재(呈才)종목과 그의 몇가지의 속무(俗舞)였다. 그 이후 8·15해방이 되면서 권번(券番)의 이름을 예기조합(藝妓組合)으로 바꾸고 교습(敎習)내용도 다소 변경되어 전해져 내려왔다.

권번(券番)에서의 춤의 교습(敎習)방법은 매우 엄격했고 그 종류도 다양했으며 시간표가 오전부터 짜여져 있어 각기 전공별로 기예(妓藝)를 익혔고 기녀(妓女)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일종의 필요악으로 여겨지면서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 권번(券番)의 기녀(妓女)들의 춤은 오늘날 한국적 특성을 지닌 승무(僧舞)를 비롯해서 살풀이, 승전무, 검무, 포구락같은 수준높은 무용문화(舞踊文化)의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의 자료는 1913년 일제 당시부터 기녀(妓女)로 평생을 살아왔던 현 86재(才)의 이윤례씨(李潤禮氏)와 그의 후배인 최예분(崔禮分)(77세(才)), 이음전(李音全)(74세(才)), 김수악(金壽岳)(64세(才))씨(氏)등의 도움으로 세상에 드러내어 놓게 되었음을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참고문헌>

- 張師勛, 韓國音樂史, 正音社, 1976
- 張師勛, 李朝의 女樂, 亞細亞女性研究, vol.淑明女子大學 亞細亞女性研究所
- 金東旭, 李朝妓女史序說, 亞細亞女性研究, vol.5 淑明女子大學 亞細亞女性研究所
- 金用淑, 韓國女俗史, 韓國文化史大系IV,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0.
- 崔淑卿, 特殊職女性, 韓國女性史, 梨花女子大學出版部, 1972.
- 河炫綱, 妓女, 韓國女性史, 同上.
- 李慶馥, 考慮時代妓女の類型考, 韓國民俗學 vol.18, 民俗學회, 1985
-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1977영인
- 成慶麟, 韓國舞踊史, 韓國演劇·舞踊·映畫史, 韓國藝術院, 1985.
- 朴 晁, 朝鮮唱劇史研究, 白鹿出版社, 1976.
- 崔南善, 朝鮮常識問答(속편), 동명사, 1947.
- 柳敏榮, 韓國演劇史II, 韓國演劇·舞踊·映畫, 韓國藝術院, 1985.
- 유인희, 한국신무용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58. 6.
- 金喜豊, 영인해제, 朝鮮美人寶鑑, 1918.